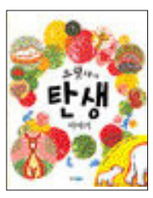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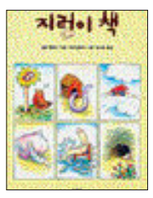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가로 세로 세계사(제1권)=‘먼나라 이웃나라’로 잘 알려진 이원복 교수의 또 하나의 역작. ‘먼나라 이웃나라’가 미국, 일본, 유럽 등에 치우친 강대국의 세계사였다면 ‘가로 세로 세계사’는 나머지 반쪽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잃어버린 세계사를 다루고 있다. ‘제1권 발칸반도, 강인한 민족들의 땅’은 민족분쟁지역의 하나인 발칸반도 주변의 역사를 상세하게 그렸다.
〈김영사·1만1천900원〉



▲으랏차차 탄생이야기=탄생에 대해 궁금해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그림책. 소중한 생명이야기를 담은 이 책에는 다양한 포유동물들의 신비하고 놀라운 탄생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생각하는 황금사과=단숨에 읽는 10분동화라는 부제처럼 짧은 이야기이지만 깊은 감명을 주는 동화들을 엮었다. 마음이 따뜻한 경찰관, 기적을 만든 아이, 박쥐의 재치, 바보같은 기다림, 욕심많은 이발사 등 감동, 행복, 지혜, 희망을 주제로 한 동화 30여편이 수록됐다. 〈세상 모든책·8천500원〉



▲지렁이책=지렁이를 소재로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글과 유머러스한 그림이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제공한다. 지렁이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 애완 지렁이를 잡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미끼, 지렁이 다루는 법 등을 읽다보면 마치 백과사전의 지렁이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문학과 지성사·7천500원〉

▲화산과 바람의 섬 제주도=우리 땅의 신비한 탄생에서부터 생성과정과 생태환경,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에 담겨 있는 지식을 살아있는 현장지식으로 바꿔주는 ‘신나는 우리 땅 과학탐사’ 시리즈. 주인공 혜성이네 가족 여행을 통해 제주도의 탄생, 생태, 생활문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뜨인돌 어린이·1만2천원〉

10가지 키워드로 들춰 본 ‘한국 美’

김성희 작 ‘양해의 육조작죽도를 방함’

우리 시대의 美를 논한다 박영택 외

개성을 한껏 뿜어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미(美)적인 것’들의 특징을 딱 꼬집어 낼 수 있을까?

현재 최첨단을 걷고 있는 국내 예술들의 특징을 분류하고 그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일반인들에겐 난해한 추상 예술 처럼 어렵기만 한 일이다. ‘극한성’, ‘식물성’, ‘해체성’, ‘일상성’, ‘자생성’, ‘해학성’, ‘퓨전’, ‘대화성’, ‘여성성’, ‘순간성’ 등의 용어들은 이 같은 일을 시도하기 위한 키워드다.

‘우리 시대의 美를 논한다(교수신문)’는 ‘한국의 현재’ 美를 이해하기 위해 이처럼 10가지 코드를 제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의 현장을 들여다보는 ‘길라잡이’다.

미술, 사진, 영화, 문학, 문화 등에 걸쳐 10명의 전문가들이 각 부문에 대한 해박한 글쓰기를 통해 용어의 개념 정의와 그 범주에 포함된 예술 현장을 소개하고 대안을 찾는다.

영화평론가 변성찬씨는 ‘한국영화에 나타난 ‘극한성(極限性)’을 김기덕 감독의 ‘섬’과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등 영화에 담긴 자기학대와 극단적인 폭력으로 설명한다. 그는 “이들 영화가 잔인한 시각적 폭력으로 우리의 일상적 의식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진정한 극한의 미학은 협소한 도덕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김기덕 감독의 ‘섬’

예컨데 ‘섬’에서 낚싯바늘을 삼키는 남자의 행위와 자신의 성기에 낚싯바늘을 집어넣는 여자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김기덕식 미학’의 특징은 극단적인 몸의 언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하는 ‘생경함의 미학’으로 풀이된다.

사진 평론가 박주석씨는 ‘사진예술에 나타난 일상성의 미학’을 통해 일상을 외면했던 사진예술 경향과 다시 평범한 일상사를 주목하게 되는 사진 예술의 세계를 짚는다. 사진술의 등장은 소수의 화가들이 독점했던 이미지 생산의 영역을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돌려놓은 일대 사건이다.

미술·사진·영화 등 10명 전문가
용어 개념 정의·예술현장 소개

미술평론가 박영택씨는 ‘식물성’을 주제로 작업하는 예술가들을 조명한다.

박씨는 대표적인 작가로 대나무를 화두로 작업하고 있는 김성희씨를 꼽는다. 김씨의 작품 ‘양해의 육조작죽도를 방함’은 사군자라는 화목(花木)의 상습적인 소재화에서 벗어나 대나무의 생김새와 섭리를 이해함으로써, 이를 빌어 동양 자연관과 세계인식, 생명에 대한 생각의 자취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책의 기획자가 머릿말에서 실토한 대로 ‘몇 몇 글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기존 관념을 되풀이 하는 수준이거나, 이론적인 혹은 이념에 치우친 글도 있었다’는 한계를 적잖게 드러내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2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새로운 조선 꿈 꾸었던 비주류 개혁가와 동료들

박제가와 젊은 그들 박성순 지음

사회는 언제나 안정을 추구한다. 안정된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꿈꾸는 자들은 언제나 비주류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 그들의 개혁은 실패하기 일쑤였다.

북학(北學)을 주장했던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제가(朴齊家·1750~1805). 이 책은 주류인 권력층에 밀려 제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역사속으로 사라진 비주류 개혁가(박제가)와 그의 동료에 관한 책이다.

박제가는 시·서·화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서얼 출신’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가진 ‘태생적 비주류’였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권력과 부를 등진 그는 조선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개혁군주로 불리던 정조의 총애를 받아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된 박제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경세관을 임금에게 피력했다.

“놀고먹는 자는 나라의 큰 좀벌레입니다. 놀고먹는 자가 갈수록 불어나는 이유는 사족이 날로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가 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중략)…그럼에도 오히려 우쭐대며 천하를 야만족이라 무시하며 자기야말로 예의를 지켜 중화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우리 풍속이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가장 큰 폐단을 ‘가난’이라고 주장한 박제가는 사·농·공·상의 구분없는 상업의 진흥을 주장했다. 또 조선의 지식층이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청나라와의 통상 확대, 수레 통용, 도량형 통일, 쌀 30만 섬 비축 등을 제시했다.

조선의 기남자(奇男子·재주나 슬기가 아주 뛰어난 사나이)로 불렸던 비운의 개혁가 박제가. 그가 겪었던 개혁과 안정, 진보와 보수 등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200년이 지난 오늘에도 흡사한 모습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기만 하다. 〈고즈윈·1만2천원〉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내인생 한권의 책

빅 맨 빅보이스- 토마스 크바스토프 자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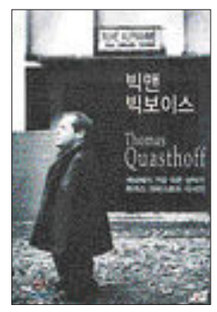
장애를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한다.

음악계에서도 장애를 극복한 연주가들의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는 심심치 않게 애호가들에게 회자되곤 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이나, 최근 ‘팝페라’라는 장르에 의욕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맹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빅 맨 빅보이스-토마스 크바스토프 자서전’을 낸 성악가 토마스 크바스토프 또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로 태어났다.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란 1950년대 후반 유럽을 중심으로 입덧을 방지하기 위해 쓴 진정제의 부작용으로 팔과 다리가 짧거나 아예 없고, 뇌손상까지 입은 상태로 태어난 1만여 명의 장애아들을 말한다.

그래서 그의 키는 1m32㎝밖에 되지 않으며, 손가락은 양손을 합쳐 7개뿐이고, 손과 발은 아예 뒤로 꺾여 있다. 그가 이런 외모 때문에 학창시절 당했던 수모는 본문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급우들의 조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육체 감옥서 탈출한 ‘큰 목소리’



“어떤 여자애도 너와 함께 손잡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지 않을 거야. 너는 손이 거의 없잖아. 다리도 정상이 아니고. … 중략 …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너는 흉측하고 너무 작거든. 너는 기형적으로 생긴 난쟁이일 뿐이라고!” 이런 충격적인 모습은 그가 최근 낸 슈베르트 연가곡 ‘겨울나그네’ 공연실황 DVD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토마스 크바스토프는 어렸을 때부터 성악가로서의 꿈을 키워왔지만, 정규 음악교육은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독일 교육법상 음대에 입학하려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는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규정이 음대 진학을 가로막은 것이다. 결국 그는 법대에 진학했고, 음악과는 거리가 먼 직업들을 전전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 그의 명함은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대 교수이자, 금시대 가장 성공한 성악가이다. 두 번에 걸친 그래미 상 수상, 그리고 2010년까지 숨 쉴 틈 없이 잡혀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의 협연 일정이 오늘날 그의 위상을 증거한다.

절망과 암흑으로 가득한 시절을 이겨내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지겨운 성공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토마스 크바스토프의 자서전을 읽으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감동은 일상에서 만나기엔 그리 흔치 않은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가 성공하기까지 겪어왔던 숱한 사건과 과정들은 오늘날 우리의 교육문제와 부모의 역할, 그리고 사회 구조의 문제까지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그는 말한다. “우리 인간은 모두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잘 것 없는 육체로 떠돌다가 암흑 속 무(無)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의 자서전을 덮으며, 한 편의 감동적인 오페라를 감상한 것 같은 전율을 느낀다. 그의 공연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볼 수 없는 필자의 박수는 정말이지 오래 갈 것 같다. “브라보! 토마스!”

김 신 희
〈음악 칼럼니스트〉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代)234-8216 핸 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충장로 대지 50평 4층건물 26억
·충장로 대지 110평 4층 27억
·금남로 도청앞 70평 5층 20억
·운림동 중심사도로접 3백평 170만
·남동 대지225평 3층건물 2억
·금호동 아파트밀집 대로접 330평 당350만
·광천동 터미널 대로접 2백평 당750만
·상무지구 상업지 120평 당1,200만
·주월동 대동고 대로접 78평 4층 6억
·주월동 장미아파트앞 대2백평 당250만
·봉선동 삼익아파트옆 대82평 당250만
·용봉지구 3면도로 대360평 현식당 당250만
·송정동 전철역앞 대1,800평 당350만
·하남 우산동 상업지 2백평 9억
·운남동 아파트밀집지 6층건물 27억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지산동 보전녹지 1천평 당85만(주택가)
·운림동 대280평 당40만
·운림동 보전녹지 전340평 당90만
(주택허가130평)
·광주댐 안근 대지, 전 5백평 주택1동 당50만
·화순 도곡 관리지역 임야 3천평 당35만
·화순 사평 built개접 8백평 주택1동 1억
·화순 동면 관리지역 임야5천평 당2만
·담양읍 자연녹지 4600평 2차선도로접 당15만
·화순 사평 대2백평 주택1동 4천만
기타 부동산
·운림동 개발제한구역 임야2만5천평 당3만
·소태동 임야1만3천평 주택1동 당1만6천
·담양 월산 임야6만평 당3천원
·화순 사평인근 계곡접 임야4만평 당4천원
·화순이양 계곡접 임야4만평 당2천원
·청풍동 4수원지인근 취락지 250평 당60만
·화정동 자연녹지 350평 당30만
·천단 산월동 자연녹지 750평 당60만
·선암동 호태옆 자연녹지 9백평 당50만
4천평 5억(교환가)
※광주인근 관리지역 임야, 전, 답 구함
※황토주택 동호인을 모십니다

믿음공인중개사
☎(代)971-4911,8 핸 011-627-0876
(첨단지구 60m대로변 마제이비인후과 건물1층)
상가 건물 매도
첨단 쌍암동,월계동,상업지역
·대지135평 건평272평 보1억5천 월세 650만원 매도10억
·대지180평 건평 515평 보3억2천 월세 1천6백 매도 23억
·대지130평 건평 300평 보1억2천원 월세 800만원 매도12억5천
·대지570평 건평1200평 보10억 월2200만원 매도가 65억 공실 360평
·대지180평 건평368평 보9,000원 월세 850만원 매도가9억5천
·대지 100평 건평150평 보8,000원 월세 300만원 매도가6억
·대지 114평 건평127평 1층 음식점 2층 주택 매도가8억
·주상대지 70평 건평110평 보5,000원 월세 8,000 매도3억2천
급 매
·첨단외곽도로계획선접 자연녹지 800평 700만원, 안청동 자연녹지 700평 75만원
첨단지구 상업지역
·토지 125,608,1600,1009,100,400,200, 265,230,96,140평 다량보유
모 텔
·객실 27개 17억, 객실 28개 21억, 객실 30개 18억, 객실 29개 19억
부동산교환(토지,건물) 지역관계없음
상가 임대
·첨단지구 1층 70,50,100,60
2층 92, 100, 150, 50, 120평
3층 150, 100, 70, 80, 170평 보유
자연녹지, 생산녹지, 임야
하남공단인근,수완동,안청동,진곡동, 산정동,고룡동,장수동, 산정동
(1,115평 13,000평 2,042평 6,000평 3,200평 4,000평 800평)
급구함
(삼거동, 삼도동, 대산동, 연산동 일대 70,000 100,000평 광산구 주유소 부지)

하이랭크 컨설팅
☎(代)383-5221, 핸 011-609-5221
(상무지구 입구 - 구.상무대입구)
▶구해드립니다
병원, 학원, 공장, 아파트, 교회, 골프연습장 주유소등 각종투자용 부동산을 구해드립니다.
▶팔아드립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및 급매물건을 팔아드립니다.
◉병원, 화원부지
• 상무지구 120평 평당 1,000만원
• 상업용지 600평 평당 950만원
• 상무지구 670평 평당 900만원
◉병원, 화원부지
• 마륵동 생록 770평 평당150만원
• 마륵동 생록 400평 평당250만원
• 상무지구 500평 평당 670만원
◉식당 및 오락실부지
• 상업용지 195평 평당 800만원
• 서구 2000평 매매가 12억 장기투자로도 적합함
◉창고 및 회사사옥
• 광산구 4000평 지목 평당65만원
• 마륵동 생록 1000평 평당 135만원
◉골프연습장 적합한 땅
• 약2000평 평당 190만원
◉건물매매
• 보증금 32억 월세3000만원 매매가 78억
• 보증금 3억 월세1000만원 매매가 17억
◉땅투자
• 상무지구 1300평 평당900만원
• 매월동 2300평 평당120만원
• 풍암동 보전녹지2만평 평당3만5천원
◉땅투자
• 광산구 4000평 평당68만원
• 벽진동 1,500평 평당75만원(군보지역)
• 벽진동 1,600평 평당65만원(군보지역)
◉부동산투자(컨설팅)
• 100억 투자 월2억수입
• 70억 투자 월1억5천만원 수익
• 150억 투자 월3억 수익
◉건물매매
• 상무지구 보증금 3억 월700만원 매도가격 17억
※부동산 광고를 통해 매도를 원하시면 전화주십시오.
★ 24시간 물건접수 및 상담환영 ★
전화상담 011-609-5221 팩스접수 383-5221
메일접수 leechulgil@hanmail.net

전원공인중개사
www.전원중개사.com
송정:송정역 건너편 945-0005, 010-4629-0989
문남:문남동 삼성아파트 상가내 951-3000, 016-681-3210
토지매도
◉광산구 송정동 시립병원~송정역사이 6차선 대로접 50평 평당 300만원
◉서구마륵동 답 908평 도시철도 공사뒤 평당 130만원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임야 2000평 광주~영광 신설도로접 매매가 상담후 결정
◉나주-송정간 대로접 폐교부지 3370평(숙박시설,일반음식점, 사우나,학원 등 적합) 급매 평당 45만원
◉여수시 돌산대단위 택지앞 해안도로접 980평 평당80만원 급매
◉북구 통림동, 생산녹지 1210평 평당70만원(급매)
◉서구 유촌동 생산녹지 60미터 계획도로접 1210평 평당80만원
◉광산구 산정동 3200평 도로접 평당80만원
◉광산구 산정동 도로접 724평 평당80만원
◉광산구 송정동 구.광산경찰서앞 시장입구 사거리코너 338평 평당 350만원
◉광산구 신가동 하남대로변 824평 평당320만원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관리지역 1379평 평당8만원(급매)
◉광산구 도산동 카이스트빌 앞 하나로마트옆 115평 매200만원
◉광산구 도산동 도산역앞 344평 평당350만원
◉광산구 도산동 4차선도로접 471평 평당 250만원
◉광산구 도산동 파람세예식장부근 70여평 평당150만원
◉광산구 송정동 사랑병원앞 8차선도로 코너 평당400만원
◉북구 생용동 일반주거지역 162평(주택포함) 평당 80만원
◉전북 남원시 산내면 뱀사골 입원 300-23만평까지 급건 다량보유 평당 7만원~130만원까지
◉광산구 송정동 5일시장입구 신협 건너편 124평 평당400만원
◉광산구 신촌동 4차선 대로접 52평 평당150만원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2차선 대로접 52평 620평 평당8만원(현진다빌)
◉광산구 소촌동 계획도로접 180평 평당70만원
◉광산구 복룡동 대로접 932평 평당170만원
◉서구 풍암동 77평 제이마트뒤 평당 370만원(급매)
상가매도
◉남구 백운동 6차선 도로접 3층 건물(A.Btjfcl) 병원적합 2005년 12월 준공 매 11억
오피스텔
◉신안동 오피스텔 45평 1억5천
임야매도
◉담양군 남면 정곡리 14만2천평 매3억(급매)
◉광산구 지죽동 황룡강변 3300평 매1억6천5백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2차선 도로접 관리지역 6만4천평 평당9만원 조정가능
주상겸용 주택
◉북구 오치동 도로접 4거리코너 3층 겸용주택 대지65평 건평100평 매매가 2억
★투자자 대모집(소액 대 환영) ★
• 지리산 일원 펜션부지 다량 보유 •

한 일 지 도(주)
☎(代)529-1409, 핸 010-2466-1409
(지산동 법원앞)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 책 판매중
★ 체크된 부분은 타사와 비교 환영
이번에 새로 나올 광주시 책은
① 광주시 전지역 그린벨트 2차 해제 198곳 수록
② 해제된곳 안에 전지역 계획선 수록
③ 해제된곳 안에 자연녹지, 공원, 주차장 용지 수록
★ 남구 효천 역세권 1, 2지구 바운다리 수록
★ 등구 용산동 택지개발 경계선 수록
★ 동구 월남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내남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등구 선교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선교동 벤처타운 부지 수록
★ 광주 무안간 고속국도 자세히 수록, 서광산 I·C수록
★ 광주시내 전지역 APT 입구, 세대수, 평형 수록
★ 하남2지구내 APT 배치도 수록
★ 수완지구 전지역 APT 배치도 수록
★ 남구 지석동 빛고을 APT 배치도 수록
★ 광산구 산정동 골든뜨레빌 APT 배치도 수록
★ 백운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동구 지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광산구, 옥동, 월전동, 평등공단 추가 수록
이외, 지적분할 및 신구 APT, 용도지역, 계획선 등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표기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광주·전남 전지역
실사출력으로 지적도 부분별 맞춤제작 합니다 (확대·축소가능)
<현재 판매중인 지번도 목록>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고흥군, 함평군, 영광군
한 일 지 도(주) 〈운암주유소뒤〉
☎ 527-6310, 핸 011-9433-6310